

2022년 대표이사 준법서신

한화시스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모두가 힘겨웠던 한 해였으며, 이러한 위기는 2022년에도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임직원 여러분 모두 눈앞의 작은 이익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공정과 정도를 지키는 ‘준법경영’의 외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올해도 계열회사와의 IT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 일감 개방자율준수 기준 도입,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개정 하도급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이 시행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은 법령위반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영진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본격화를 천명하는 등 국가와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또한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행동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국가와 사회의 준엄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는 기업은 시대의 낙오자가 되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갈 것이나, 이를 받아들여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달성하는 기업은 신뢰받고 존경받는 참기업으로 인정받고, 또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화시스템이 이러한 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요구 수준에 맞게 현재의 준법경영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의 전반적인 준법경영 수준이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경영 반부패 분야의 ISO 인증 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추후에는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부패, 공정거래 등 ESG경영과 정도 경영의 가치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한화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회사의 준법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들 모두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회사 준법경영 수준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올 한해 회사 준법경영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5일

대표이사 어성철